

# 日, 첫 女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 ‘초엔저’ 재개되나

1년 안팎 기간 동안 세번째 총리 다카이치 ‘아베노믹스’ 재개 천명 엔저 부추겨 원화 동반하락 가능성

전문가 “日 경제 인플레이션 국면 슈퍼엔저 상황 재개는 어려울 것”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하면서 ‘초엔저’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양적 완화에 기반한 ‘아베노믹스’ 재개를 천명하면서, 엔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화가 큰 만큼, 엔화 약세가 재개되면 원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일본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며 첫날부터 전속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출현했다. 자민당이 지난 7월 처리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 참·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6년간 자민당과 공조했던 공명당과의 연립도 붕괴하면서 자민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름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한 신조어인 ‘아베노믹스’는 최저 수준의 금리와 무제한적 통화공급에 기반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24년 3월 일본 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중앙은행 금리를 0%대로 인상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종료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물가를 따

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률 등 경제정책 실패 이후 사퇴했고, 뒤를 이어 취임한 이시바 총리도 금융 소득세 인상, 임기 중 쌀값 폭등 등을 겪고 1년만에 사임했다.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세번째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경제 정상화는 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아베노믹스의 재개를 천명한 다카이치 총리로 취임하면서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슈퍼 엔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달 초 달러당 147.05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달러당 151.87엔까지 상승(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했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성이 크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도 함께 하락한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 출범이 확정된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오른 1427.8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고, 야간 거래에서는 1432원까지 상승했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환당국이 지난 13일 구두개입에 나선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0엔당 800원대 수준의 ‘슈퍼 엔저’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아베노믹스’가 추진됐던 배경과 일본의 현 경제상황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추진 당시에는 일본 경제의 가장 급선무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고, 일본 중앙은행과 공조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 수 있었다”면서 “현재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고, 과도한 돈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전 아베노믹스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나에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강도는 아베노믹스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점진적이지만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AI도입, GDP 12.6% 증대… 성장둔화 상쇄”

구윤철 부총리, APEC 모두발언 “기업·공공·국민 등 AI대전환 추진 AI 7대 프로젝트에 R&D 등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10% 넘게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AI·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AI 전환이 한국 및 세계 경제의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합동세션 모두발언에서 “저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어 챗GPT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 정부와 APEC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근 챗GPT에 물었다며 “APEC이 회원 간 정책 일관성·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그 세부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

내용도 공유했다. AI 도입이 전 세계 GDP를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장의 혜택은 선진 경제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공동 번영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녔다고 했다. 이에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들의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北, APEC 일주일여 앞두고 ‘탄도미사일’

李 정부 들어 처음… 안보회의 열어

북한이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8시 10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

다.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대화를 강조했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APEC 정상회의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9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도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서예진 기자 syj@

## “쟁점 남은 상태로 MOU 체결 고려안해”

>> 1면 ‘韓美 관세협상…’서 계속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80만원대’

임금근로자 월급 평균 320만원 넘어 비정규직 208만원, 정규직 389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80만 원대까지 벌어졌다. 올해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 7000원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늘었다. 정규직은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389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 8000원으로 1.9배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시 비정규직의 월급은 전년보다 8만 원 늘어난 303만 7000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85만 9000원까지 좁혀진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격차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